

2025학년도 1학기 독서클럽(27기) 테마도서 서평

작성자	김아린	도서명	트렌트 코리아 2025
학번	2531046	저자명	김난도 외 8인

서평 내용 (개별항목 및 항목별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가능, **1,000자 이상** 작성)

■ **도서 선정 이유** (이 책을 선택한 계기나 흥미를 끈 이유) *100자 내외

사회과학부 학우들이 모인 독서 클럽으로서 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이슈를 나눔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 듯하여 선정하였다.

■ **주요 내용 요약** *300~400자

트렌트 코리아 시리즈의 주된 특징으로는 10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. 몇 가지 주요 트렌드로는 첫째, 옴니보어 (Omnivore), 잡식성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현대인으로 표현되었다. 둘째, 아보하 (아주 보통의 하루), 별 탈 없이 하루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것 자체로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. 셋째, 토픽 경제. 동일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개인의 취향 한스폰이 더해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 있다. 넷째, 무해력. 스트레스 받을 일 많은 사회에서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이 생긴 것들이 사랑받고 있다. 위와 같은 주제들을 바탕으로 2025년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.

■ **느낀점 및 인상 깊은 부분** *400~500자

작 중 '시간의 가속화'라는 말이 나온다. 파르칼 브뤼크네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바쁘고 빠르게 반복되는 일상이 곧 잘 살고있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. 머리가 멍했다. 너무나도 맞는 말이며 내 상황에 딱 들어맞았다. 알바에 소모임, 학생회, 동아리, 운동 등으로 인해서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하루가 없었다. 즉, 사색하고 성찰할만한 심적 여유도, 시간적 충만함이 부재했다. 그럼에도 잘 살고 있다기에는 어폐가 있었다.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것도 아니며 학생회 선배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지도 못했다. 와중에 성적과 과제까지 잘 챙기기엔 더욱이 쉽지 않았다. 과연 효율적인 삶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았고 한동안은 허탈감이 가득했으나 이제 어느 정도 답을 내렸다. 추후에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삶이 후회로 가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.

첫 장부터 등장한 옴니보어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. 관심가는 분야는 다양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직접 경험해보아야 만족한다. 미처 하지 못해 남은 미련보다 비효율적이더라도 편식 없는 식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이번 학기 바쁘게 보내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선택지들을 좁혀나갈 것이다. 흔히들 '선택지를 늘린다'는 말을 더 좋아하지만 과한 옴니보어에게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 또한 필요할테다.

■ **도서 추천 여부 및 이유** *100자 내외

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. 딱딱한 책처럼 보이지만 부담 없이 술술 읽혀나간다. 2026 시리즈도 물론 읽어볼 의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를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.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그 이후이다. 지금의 대한민국을 조금이나 더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단언한다.

[서평 침삭 및 제출 방법]

서평 작성 ▶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[\[사고와 표현 과정\]](#) 내외국인 [표현능력상담](#) 프로그램 신청 ▶ 침삭내용 토대로 내용 수정 ▶ 서평 본문 및 침삭과정(상담 신청 캡처, 침삭메일 등)을 PDF파일 1개로 합쳐 E-CLASS 커뮤니티 제출